

여호수아 22장 30-34절 말씀

30 제사장 비느하스와

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
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

31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

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
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
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
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

32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

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
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
그들에게 보고하매

33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

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
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
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

34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옛이라 불렀으니

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